

본문: 빌립보서 4 장 1 절

제목: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1.

제 연구실에 있는 책상이 높낮이 조절이 되는 책상입니다. 책을 볼 때나 설교를 쓸 때 자주 책상을 최고 높이로 높여서 서서 일을 보곤 했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책상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계가 망가졌는지 않아서 설교를 써야만 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만은 두 발을 땅 위에 대고 반듯이 서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Homo Erectus 라는 뜻이 직립 인간, 즉 반듯이 서서 걷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돌이 막 지난 아기인 이든이가 최근에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적잖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첫 애도 12 개월이 막 지나자 걷기 시작하더군요. 아기가 막 첫 발을 떼던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 놓고 두고두고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두 발로 설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인간만의 행동입니다. 설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설 수 있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설 수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아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조각가 Alberto Giacometti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주로 활동하던 시대는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였습니다. 2 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계몽주의 이후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진보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 차 세계 대전과 2 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는 말 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인간에 대한 실망과 역사가 앞으로 발전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그는 주로 서 있는 사람과 걷는 사람의 모습을 조각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LA 지역에 살 때 Getty Center 라는 큰 미술관을 방문한 적 있는데, 거기에 자코메티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더라구요. "Standing Woman"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실은 그의 대표작은 "Walking Man"입니다. 워킹맨이라는 작품은 근육도 하나도 없이 뼈뺀 마른 남자 한 명이 꾸부정하게 허리를 앞으로 향하여 걷고 있는 형상입니다. 눈은 쾅하게 좇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앞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자코메티는 세계대전 이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갖고 일어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어둡더라도 앞을 향해 걸으며 전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그의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거나 죽은 사람은 절대 설 수 없고 걸을 수 없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만이 설 수 있고 절망을 떨쳐내며 목표를 향해 순례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2.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 장 1 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2 차 선교여행을 통해 그가 개척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 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여행을 가려고 했으나 그것이 막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나서 그의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빌립보 지역으로 수정합니다. 거기서 그는 루디아라는 보라색 옷감을 파는 여자를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빌립보는 바울과 그의 친구 실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곳이기도 했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귀신들린 여자 아이를 치료해 주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을 통해 그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예전에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교여행을 출발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음을 경험했었죠. 계획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는 혼란스런 상황을 맞이 한 것이죠. 내가 계획 했던 일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 앓기 쉽습니다. 또한 분명 하나님이 수정하신 계획에 맞추어 온 곳에서 바울 일행은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감정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하지만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주저 앓지 않고 그들은 감옥 한 가운데서 차꼬에 발이 묶여진 상태였지만 일어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일어나십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통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 앓지 말아라.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굳건히 서 있으라구요. 오래 전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보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 그 교인들 가운데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냥 주저 앉아버리는 것으로 절망의 양이 차지 않아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저 앉지 말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라 부탁한 것입니다.

3.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에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매우 다정한 표현을 빌립보 교회에 건내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헬라말은 성경에서 이곳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말을 가져와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뜻은 애뜻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모두 포함된 사랑 표현이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헬라말은 Kara 이구요 면류관이란 단어는 Stefanos 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만족스러워 하는지 이런 단어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Stekete En Chsisto. 동사의 형태가 Second person Plural 형태입니다. 직역하면 “너희들은 서 있어라 예수 안에서” 입니다. Stekeo 동사를 보면 영어의 Stand 가 여기서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원래 전쟁용어입니다. 전쟁에서 대오를 정렬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방배와 창을 가진 군사들이 열을 맞추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대오를 맞추어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서있으라는 뜻입니다. 전쟁 상황이니 얼마나 치열하고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절망하여 주저 앉아 있지 말고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뚫리면 대오가 흐트러지고 적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전치사 구가 ‘서있으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있으면 이 모든 긴장들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뜻 안에는 혼자서 서기 힘드니 주와 함께 설 뿐아니라 형제 자매가 함께 서 있어주라는 뜻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서로 어깨를 맞대어 함께 서주면 설 힘이 없는 자들도 설 용기를 얻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대항 공동체입니다. 싸움은 혼자서 하면 힘듭니다.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 해쳐 나가면 어려울 것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3 장 14 절에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달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3 장 17 절에서는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도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바람의 정도를 한 단계 낮춘 듯 보입니다. 달리기까지 않아도 되니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있어 달라고 합니다.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고 형제 자매들 곁에서 악과 불의에 맞서서 물러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행한 일인데도 감옥에 가거나 일이 더 꼬여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저 앓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하였음에도 여전히 안갯 속이고 터널을 벗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면 좋기야 하겠지만 일단은 서 계시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resurrection 입니다. 이 말은 라틴말 ‘surgo – I stand’라는 말에 ‘다시’라는 뜻의 ‘re’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다시 일어남’이 부활입니다. 헬라말로는 Anastasis 인데 ana 가 다시라는 뜻이고 stasis 는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Resurrection 과 Anastasis 모두 ‘다시 일어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저 앓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삶입니다.

4.

일본이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하던 시기를 일제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 제국에 의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우리나라는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어둡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새 날을 기대하고 희망했어요. 그냥 주저 앓지 않고 일어났고 그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실제로 폭탄을 들고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운 사람들도 있지만 글을 쓰거나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윤동주 같은 시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들은 일본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문학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 넣고 싶어했어요. 이상화라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도 어두운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 첫 소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시인은 다리를 절며 빼앗긴 들판을 걷습니다. 푸른 보리밭을 거닐며 푸른 하늘을 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들판이 일본에 빼앗긴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을 떨쳐내기 위해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겨우내 눈에 덮여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보리싹들이 이렇게 자라 영글어가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만물이 죽은 줄로만 착각하게 만들던 겨울 때문에 시인은 봄이 온다는 상상력을 잃어버렸었죠. 하지만 어김 없이 찾아 온 봄을 마주하며 자신이 잊고 있었던 희망을 다시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겨울을 몰아내는 따스한 봄이 어김 없이 찾아 오듯 빼앗긴 조국도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할 날이 올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푸른 보리밭 속을 걸으며 봄을 느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빼앗긴 들판이지만 그 위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봄이 오는 것을 비웃는 것처럼 여전히 춥고 눈폭풍이 불어닥쳐도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절망에 속절없이 주저 앉아만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도 덩달아 일어나실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내 삶에 찾아 올 봄을 기대하십시오. 내 삶을 눈처럼 덮고 있는 절망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함께 서 계십시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의 절망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절망하며 한숨짓는 이의 곁에 서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5.

지난 주 부활절이 제 막내 아들의 생일이었잖아요. . 이 아이의 생일만 되면 저는 부활을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생일과 함께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막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제가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양이 암덩이였다는 사실이 판명되면서 주저 앓을 수 밖에 없었죠. 아내는 만삭에 한 달 후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암담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몸이 건강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그 검사결과를 부활절 즈음에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감격에 그해 부활절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선교지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 광고가 흘러나오더라구요. 아주 어릴 적에 봤던 영화라 다시 그 영화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주제곡과 함께 흰 옷을 입은 달리기 선수들이 바닷가 모래밭을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였는데 잠시 고국인 영국을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달리기 선수였고 국가대표로 뽑혀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달리기로 금메달을 딴 후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선교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빌립보서 3장 14 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는 아직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러분을 웅크리게 하는 겨울은 봄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안개는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 겁먹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전진하십시오. 루쉰은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완전히 망했을 때부터 활동했던 문학가입니다. 그는 원래 문학을 할 마음이 없었고 의사가 되기 위해 일본 유학을 갔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조국이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의사가 되어 무엇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야겠다는 생각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시 땅 위엔 길이 없다. 걷는 이가 많아지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시인 다카무라 고타로는 루쉰의 영향을 받아 <도정道程>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앞에 길은 없다. 내 뒤에 길은 생긴다.” 희망이 없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뚜벅뚜벅 앞으로 걷다 보면 내 뒤에 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그를 따라 걷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길을 따라 우리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끝에 참 기쁨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걷고 있습니다. 걷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주저 앉지는 마십시오. 힘들면 옆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잠시 기대어 쉬어도 좋습니다. 부디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